

## 큰 빛, 권위를 가지신 분, 의사, 신랑, 생배 조각,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12/02 월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4:16

16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 요 8:12

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 요 1:4-5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5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 요 12:36

36 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셔서 몸을 숨기셨다.

#### 엡 5:8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골 1:12-13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3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 고후 4:6-7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4 장 16 절은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고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을 비추는 큰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가리킨다. ... 이 빛은 사실상 죽음의 그늘에 비치는 생명의 빛(요 8:12)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마태복음 4 장 16 절에서 주 예수님은 능력이나 권위를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바닷가를 거니셨다. 그러나 그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접촉하셨을 때, 어둠에 그리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비치는 큰 빛처럼 그들을 비추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마다 빛도 온다. 큰 빛으로서 그분은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떠오르신다. ...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모두 죽음의 그늘이 가득한 그러한 땅에 있었다.

죽음의 그늘은 어둠, 즉 사탄의 어둠이다. 그러한 어둠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지 빛으로서가 아니라 큰 빛으로서 오신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을 때, 신성한 빛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왔다. 그 즉시 우리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비추는 느낌을 가졌다. 이러한 종류의 비춤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춤이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그분의 자녀들이 된 것에 대한 강한 확증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7, 35-36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계를 꾸리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죽음의 그늘에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느 강가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그 체험을 주의하지 않고 생계를 걱정했다. 그래서 생계를 꾸리러 갈릴리 바다로 갔다. ...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과 같은 대도시에서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모든 사람은 어둠 안에 있으며, 죽음의 영역과 그늘 안에 있다. 새 왕께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갈릴리 바다로 오셨으며, 오늘도 여전히 갈릴리 바다로 오셔서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 바닷가를 거닐고 계신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작은 어린양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빛으로서 오신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이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었다. 그분은 거기에 서셔서 그들을 비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베드로와 안드레여,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단강 가에서 그대들을 만난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베드로여, 내가 그대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이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다.

우리의 체험도 그들과 동일하다. 우리는 요단강 가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어버리고 생계를 꾸리러 갈릴리 바다로 갔다. 우리가 생계를 위해 거기서 일하고 있을 때, 요단강 가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만났던 그분께서 우리를 비추는 큰 빛으로서 오셨다. 그분은 우리를 비추시면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다. … 나는 원칙적으로 우리 중 아주 많은 사람에게 이런 체험이 있었다고 믿는다. 우리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어린양에 의해 구원받았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빛의 비춤에 의해 부름 받았다. 강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쉽게 잊을지 모르지만, 갈릴리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큰 빛이 비치었던 때는 잊을 수 없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97-19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7;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12/03 화요일

### 아침의 누림

마 8:5-13 (8-10)

5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아와 간구하며  
6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라고 말하였다.  
7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 주겠습니다.”라고 하시자,  
8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11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칫상에 앉겠으나,

12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13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대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왔다.

---

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진 분이시다. 이방인 백부장은 … 주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했다.

주님의 권위는 주로 그분의 말씀으로 행사된다. 주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자신이 가서 그의 종을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부장은 그분께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마 8:8)라고 말했다. 이방인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주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직접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시기를 그분께 부탁드렸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7, 40-41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한 면으로 주님과 관련하여,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으로 행사된다. 다른 한 면으로 우리와 관련하여, 주님의 권위는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주입하신 믿음을 통해 행사된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분께 귀 기울일 때 그분의 존재, 바로 그분의 인격이 믿는 능력을 우리 안으로 주입한다. 이렇게 믿는 능력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다. 우리가 아름다움과 뛰어난 미덕들을 지니신 주님을 주목할 때 그분은 살아 있는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며, 이렇게 주입된 요소는 우리의 믿음 곧 우리의 믿는 능력이 된다. 이런 이유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불리신다(히 12:2). 백부장에게는 주 예수님께서 그의 안으로 주입하신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에 감탄하시며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마 8:10)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후에 그분은 백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대가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13 절)라고 말씀하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7, 41 쪽)

회당에서 주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시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막 1:21-22). … 하나님의 노예는 노예-구주로서 타락한 사람들을 섬기실 때에 … 사람들을 사탄의 어둠에서 신성한 빛 안으로 이끄시기 위해(행 26:18), 이 같은 가르침을 수행하셨다(막 2:13, 4:1, 6:2, 6, 30, 34, 10:1, 11:17, 12:35, 14:49).

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시고 또한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갈릴리는 단지 멸시받는 지역일 뿐 아니라 또한 어둠의 장소였다. 이것에 대해 마태복음 4 장 15 절과 16 절은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리아,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라고 말한다. 이 절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통과하실 때 어둠에 빛을 비추시고 죽음의 땅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는 분이셨음을 가리킨다. 특별히 노예-구주의 가르침은 큰 빛의 비춤이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빛을 비추는 말씀이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빛이 그들 위에 비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 빛 비춤을 받았다.

마가복음 1 장 22 절에 따르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크게 놀랐고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는 분으로서 가르치셨다고 말했다. 스스로 공허한 지식을 가르쳤던 자칭 율법학자들에게는 권위도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이 노예는 하나님에 의해 실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분은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신성한 다스림에 복종시키는 신성한 권위도 있으셨다.(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62-6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스겔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 마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 12/04 수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9:11-13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라고 하니,  
12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 잠 4:20-23

20 내 아들이야, 내 말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21 그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마음 한가운데에 간직하여라.  
22 내 말들은 그것들을 찾아 얻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에 치료제가 된다.  
23 늘 깨어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 출 15:22-26

22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를 삼 일 동안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23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마라라고 불린 것이다.  
24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는 그곳에서 백성을 위하여 울레와

규례를 세우셨으며 또 그곳에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26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여호와와 너희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나 여호와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계명을 청종하고 나의 모든 율례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그분께 주어진 기회로 삼아, 의사이신 그분 자신에 대한 매우 달콤한 계시를 주셨다. …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마 9:12)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리 들과 죄인들이 병든 사람 곧 환자이며, 자신은 그들에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 곧 치료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은 왕국을 위해 그분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부르실 때,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사역하셨다. 재판관이 심판하는 것은 의에 따른 것이지만,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긍휼과 은혜에 따른 것이다.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마 8:2-4)과 중풍병 환자들(8:5-13, 9:2-8)과 열병 환자(8:14-15)와 귀신 들린 사람들(8:16, 28-32)과 각종 병든 사람들(8:16)과 멸시받는 세리들과 죄인들(9:9-11)이었다. 그분께서 이 가련한 사람들에게 재판관으로서 찾아오셨다면, 모든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거절당했을 것이며, 아무도 하늘에 속한 왕국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거나 선택을 받거나 부름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의사로서 사역하시러 오셨는데, 그 목적은 그들을 하늘의 새로운 시민들로 재조성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7, 42-43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주 예수님을 비평했으며,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을 유죄판결 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유죄판결 하는 재판관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스럽고 다정하고 친밀한 치료자인 의사로서 왔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사실상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셨다.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다. 마태복음 9 장 13 절에서 주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흠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일부이다. 그러나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공흠이나 은혜 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기를 더 좋아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반대된다.

여기서 주님은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롬 3:10). 모든 ‘의인’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들이다(눅 18:9). …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성경 지식을 자랑했고, 자신들이 성경을 매우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 예수님은 가서 무언가를 배우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공흠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의로운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

그 세리들과 죄인들은 신체적으로 병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다. 주 예수님은 그들과 잔치하시는 동안 그들을 치료하고 계셨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바리새인들이여, 여러분은 재판관이지만 나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나는 병든 사람들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여러분을 고칠 수 없습니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7, 43-45 쪽)

주님은 우리 몸은 치료하실 수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영과 혼의 각 부분은 항상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8, 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7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메시지 268;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5*

## 12/05 목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9:15

1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 마 25:1

1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

#### 빌 3:12-13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 창 2:4

4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던 때에 그것들의 생성은 이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 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

의사와 신랑은 다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다. 나는 주님의 지혜를 높이 평가한다. 바리새인들과 관련된 사례에서 주님은 자신을 의사에 비유하셨다(마 9:12).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관련된 사례에서 그분은 자신을 결혼식의 신랑에 비유하신다(15 절). ... 신랑과 함께 있는 시간은 즐겁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 그들은 금식할 것이다.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말은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과도기에, 그분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었다. 후에 그들은 신부(요 3:29, 계 19:7)가 될 것이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을 빼앗기는 것은 왕이신 구주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시셨을 때 일어났다(행 1:11). 그 후에 그들은 금식했다(13:2-3, 14:23).(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7, 49 쪽)

### 오늘의 읽을 말씀

왕이신 구주는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옛 종교에 속한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에는, 자신이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사임을 나타내셨다(마 9:12). 그리고 그분은 금식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새 종교에 속한 요한의 제자들을 대하실 때에는, 자신이 신부를 맞으러 온 신랑임을 계시하셨다. 침례자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는 신부를 맞으러 온 신랑이시라고 말했다(요 3:25-29). 이제 왕이신 구주 그리스도는 그들 중 몇 사람에게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낮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신랑의 친구들이 되게 하셨으며, 결국에는 그들을 신부로 삼으실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분을 그들의 의사로 붙잡아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기쁨을 갖도록 그분을 자신들의 신랑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들은 그분을 잃은 슬픈 장례식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즐거운 결혼식에 있었다. 그러니 어찌 그들이 그분 앞에서 금식할 수

있으며 잔치를 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한의 제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기하는 질문을 한 것(마 9:14)은 그들 중 일부가 새 종교 안에 빠져 왕이신 구주를 배척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은 교리와 관계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은 교리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곧 가장 즐거움을 주는 분이신 신랑으로 대답하셨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교리적인 방식으로 ‘왜’라고 물으면서 항상 교리를 주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그분 자신을 주의하신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의 생활과 행함은 어떤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신과 그분의 임재에 의해 조절되고 지시받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서 금식한다면 그것은 우스꽝스러울 것이다. 더욱이 다른 이들이 결혼 잔치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금식하는 것은 신랑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본다. 주님은 그들과 따지지 않으셨지만,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들을 유죄판결 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표적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신랑이고 내 주위의 나의 모든 제자들이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들은 금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없었다면, 주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의사와 신랑으로서 계시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7, 49-50 쪽)

이삭의 결혼에 관한 기록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이고, 종은 영하나님의 예표이며, 이삭은 아들 하나님의 예표이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예표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은 아들과 결혼하여 아들의 배필이 된다. 신약

전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아들의 신부이자 배필이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얻으시는 것에 관한 기록이다(요 3:29, 고후 11:2, 엡 5:25-32, 계 19:7-9, 21:2, 9-10).(창 24:2 각주 2)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7

## 12/06 금요일

### 아침의 누림

#### 마 9:16

16 또 그 누구도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깎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운 조각이 옷을 당겨 옷이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 눅 5:36

36 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드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낡은 옷에 대고 깎지 않습니다. 만약 기우면 새 옷이 찢길 뿐이고, 새 옷에서 찢어 낸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 눅 15:22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겹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 갈 3:27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 고전 1:30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 시 45:13-14

13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14 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 계 19:8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 렘 2:32

32 처녀가 자기 장신구를, 신부가 자기 예복을 잇을 수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수도 없이 여러 날 동안 나를 잊어버렸다.

---

마태복음 9 장 16 절에서 주님은 훨씬 더 좋고 달콤하고 친밀한 어떤 것으로 계속 나아가신다. ... 생베 조각의 '생'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 '빚질하지 않은', '김을 씻어 씻지 않은', '끝손질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처리하지 않은'을 의미한다. 생베란 육체가 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리스도, 곧 처리되지 않고 끝손질되지 않은 생베 조각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누가복음 5 장 36 절에 있는 새 옷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리되신' 후의 새 옷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누가복음 5 장 36 절에 있는 '새(new)'에 대한 헬라어 단어 '카이노스(kainos)'는 마태복음 9 장 17 절에 있는 '새(fresh)'에 대한 헬라어 단어와 같다.) 그리스도는 먼저 새 옷을 만들기 위한 생베이셨고, 그 다음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 우리를 덮는 새 옷으로

만들어지셨다(눅 15:22, 갈 3:27, 고전 1:30). ... 생베 조각을 낚은 옷에 대고 깎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우리가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주의자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예수님의 인간적인 행위를 모방한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서 그들을 덮어 주는 새 옷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8, 51-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9 장 16 절에서 낚은 옷은 사람의 타고난 옛 생명에서 산출된 선한 행동과 선한 행위들과 종교적인 실행들을 의미한다. 주 예수님은 매우 지혜로우셨다.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여러분의 옷이 헤어졌고 구멍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할 때 사실상 여러분은 생베 조각을 잘라 여러분의 구멍 난 옷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대신에 주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온전한 옷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셨다. 주님은 그들의 옷이 구멍 났으며,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그 구멍을 기우려고 하는 것임을 시사하셨다. 어떤 사람도 16 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수 없다.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은 의미와 책망과 계시와 가르침으로 가득하다. 주님은 ...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 “왜 여러분은 나에게 금식에 대해 묻습니까? 여러분의 금식은 여러분의 헤어진 옷을 깎는 한 가지 길입니다.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은 여러분의 옷에 기워야 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 지금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구멍을 깎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은 자신의 옷에 있는 구멍을 깎기 위해 나의 생베에서 한 조각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천은 잡아당기는 힘이 가득합니다. 내 천의 어떤 조각도 여러분의 헤어진 낚은 옷에 대고 깎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 구멍은 더 커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5 장 36 절의 기록은 마태복음 9 장 16 절과 다소 다르다. ... 마태복음은 '생베' 곧 천을 말하고 누가복음은 '옷'을 말한 것에 주목하라. 주 예수님은 자신을 생베 조각에 비유하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가 되신 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그분의 어떠한 심을 가리킨다. 이 기간 동안에 그분은 생베, 즉 결코 가공되거나 처리된 적이 없는 새 천이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새 천'은 처리되어 '새 옷'으로 만들어졌다. 주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한 조각의 생베로 주지 않으시고 완성되고 끝손질된 옷으로 주심으로, 우리가 이 옷을 우리의 의로 입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죽음과 부활 후에 그분은 끝 손질된 옷이 되셨고, 우리는 이 옷을 입음으로 그분의 결혼 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그분은 신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결혼 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주는 우리의 결혼 예복이시다. 죄인들이자 세리들인 우리는 신랑의 임재를 누릴 자격을 갖도록 새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8, 52-5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8*

12/07 토요일

아침의 누림**마 9:17**

17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고전 12:12**

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삿 9:12-13**

12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소. ‘그대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게나.’

13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행 9:5**

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고전 1:10-13**

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11 나의 형제님들, 글로에의 집 사람들 편으로 내가 여러분에 관하여 알게 된 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12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

마태복음 9 장 17 절에서 ‘새(new)’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네오스(neos)’는 ‘시간상 새로운’, ‘최근의’, ‘새로 소유한’을 의미한다. 여기의 새 포도주는 활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감동시켜 열광하게 하는 새 생명인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새 포도주는 힘을 북돋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신성한 생명은 힘을 북돋아 주는 능력을 가진 포도주로 비유되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은 온종일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서 우리를 감동시키고 열광하게 한다. 이 새 포도주는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활력적이 되게 하며 매우 기쁘게 한다. 주님은 우리가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낚은 가죽 부대는 종교적인 실행들을 상징하는데, 예를 들면 옛 종교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새 종교에 속한 요한의 제자들이 지켰던 금식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낚은 가죽 부대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8, 56-5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새 포도주는 그것을 담을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 새 포도주는 발효시키는 힘이 가득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시키는 힘이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이다. 종교적인 실행은 어떤 것이든 일종의 낚은 가죽 부대이다.

마태복음 9 장 17 절에서 ‘새(fresh)’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노스(kainos)’로서 본성이나 품질이나 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즉 ‘익숙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새’라고 번역할 수 있다. 새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 곧 열광하게 하는 생명인신 그리스도 자신을 담는 그릇인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있는 교회생활을 상징한다. 왕국 백성은 교회로 건축되고(마 16:18), 교회는 왕국 백성이 살고 있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 표현된다(18:15-20).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며 교회가 된다(롬 12:5, 엡 1:22-23). 또한 그리스도의 총만인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라고도 불린다(고전 12:12).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새 포도주, 곧 열광하게 하는 내적인 생명이고,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새 가죽 부대, 곧 새 포도주를 담는 외적인 그릇이다. 왕국 백성에게는 금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실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내용이 되시는 교회생활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새 가죽 부대가 교회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확대이다. 개인적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포도주가 되신다. 이 개인적인 그리스도께서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확대되실 때, 이것이 바로 교회이다.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주이신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담는 가죽 부대, 용기이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 장 12 절에서 ... 함께 구성된 지체들이 한 몸이라는 것뿐 아니라 이 몸은 그리스도라는 것도 본다. ...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실질적인 방식으로 몸이실 수 있는가? 그분께서 몸이신 것은 몸이 그리스도로 총만한 매우 많은 지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며, 우리 모든 사람 안에 계신다. 우리 모두는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고린도전서 1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지 않으셨다고 말한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충만한 매우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몸이다. 이것이 새 가족 부대, 곧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교회생활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된다. ... 교회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교회 사람들이다.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새 옷, 새 포도주, 새 가족 부대가 모두 회복되었다. 우리는 단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교회생활로 소유한다. ...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이다. 우리가 교회에 이를 때 하나님의 목적의 최종 완결에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8, 58-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8

### 추가로 읽을 말씀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1 권, 메시지 12

## 12/08 주일

### 아침의 누림

#### 행 26:18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 눅 1:78-79

78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79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 눅 6:36

36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 애 3:22-23

22 여호와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 말 4:2

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뿔 것이다.

#### 잠 4:18

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 마 13:43

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 찬송: 78 (英) 은혜의 주 그는 예수 (中:61)

1 은혜의 주 그는 예수 그 이름은 "나는...이다" 풍성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이름.

4 우리 죄를 담당하신 어린양인 주 예수님 신부 취해 연합하는 신랑이실세.

7 주는 생명 주는 참 빛 어둠 제해 죽음 삼켜 우릴 살려 해방하네 밝게 하시네.

8 주는 부활 주는 능력 무덤 뚫고 음부 이겨 우릴 강건하게 하여 승리케 하네.

10 우릴 위해 목숨 버린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우리 모든 질병들을 고치신 의사.

11 제사장과 왕이신 주 하나님께 이끄시네 우리 또한 주 권위에 참여한다네.

12 주는 소망 또한 구속 우리 모습 변케 하네 주 복사해 주님 자신 표현케 하네.